WSJ, 한국 씨름 소개하며 '스모' 표기 논란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한국의 씨름 열풍을 소개하면서 기사 제목에 '스모' (Sumo)라고 표기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2일 '한국은 스모 선수들이 군살을 빼길 원한다(South Korea Wants Its Sumo Wrestlers to Slim Down)'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쇄락했던 씨름이 어떻게 부활을 꿈꾸고 있는지 소개했다.

기사는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씨름 광고 장면으로 시작해, 이 전통경기의 이름이 씨름이며 일본 스모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또 KBS에서 방송된 <씨름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과 '씨름돌(씨름 아이돌)' 로 불리며 광고에 출연한 허선행 선수 등에 대해 소개했다. 대한씨름협회가 선수들의 체급 기준을 낮추고 선수들이 '헤라클레스 같은'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기를 원하며, 몇 안되는 미남 선수들에게 관심이 쏠리면서 다른 선수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현실도 전했다.

그러나 3일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 트위터 계정에 해당 기사 링크가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본문에는 한국 씨름판이 다시 흥행하고 있다는 것과 한국의 씨름과 일본의 스모는 다른 규칙을 가진 스포츠라는 것도 언급되어 있지만 정작 기사 제목은 씨름(ssireum)이 아닌 스모(Sumo)로 표기돼 논란이 일었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영어로 "스모라니, 장난하는가" , "스모가 아니라 씨름" , "끔찍한 문화적 무지" ,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 글을 쓰고 싶으면 정확히 알고 쓰길"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씨름은 유네스코에 사상 처음으로 '남북 공동 인류무형문화유산' 으로 등재돼 관심을 끈 바 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남북의 씨름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했다.

정식 명칭은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um/Ssireum)이다.

박인비, 2010년대 LPGA 최고 골퍼 등극

박인비(31)가 미국 골프위크가 선정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최근 10년간 최고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2일 '골프다이제스트' 에 따르면 미국 골프위크는 전날 최근 10년간 LPGA 투어 10대 선수를 꼽았다. 그중 박인비가 1위로 선정됐다.

골프위크는 "안니카 소렌스탐(49, 스웨덴), 로레나 오초아(38, 멕시코)가 은퇴한 이후 LPGA 투어 이 10명의 선수가 최근 10년을 지배했다." 며 "2010년 5월 로레나 오초아가 158주 연속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한 뒤 12명이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바 있다." 고 소개했다.

그중 박인비에 대해선 "2013~2018년 6년간 106주 동안 세계 랭킹 1위를 지냈고 LPGA 통산 19승 중 최근 10년 동안 18승을 기록했다. 올림픽 금메달도 땄고, 2013년 메이저 3연승을 비롯해 메이저 7승을 기록했다. 커리어 그랜드슬램도 달성했다." 고 설명했다.

2위는 대만의 골퍼 청야니(30)가 차지했다. 청야니는 2011년 한 시즌에 올해의 선수, 상금왕, 평균타수 1위를 휩쓸었고 2011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09주 연속 세계랭킹 1위를 질주한 강자였다. 연속 세계 1위 기록은 오초아에 이어 두번째로 길다. 하지만 2013년 하반기 이후 갑작스런 부진에 빠져 아직까지 과거의 명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3위는 천재소녀로 불렸던 리디아 고(22, 뉴질랜드)가 자리했다. 리디아 고는 15세였던 2012년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에서 역대 최연소 L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메이저 대회 2승 등 LPGA 통산 15승을 기록했다. 미국의 간판 스테이시 루이스, 태국의 골프 스타 에리야 주타누간이 뒤를 이었다.

가장 최근 미국 선수로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스테이시 루이스(34, 미국)가 4위, 지난해 올해의 선수상과 베어 트로피(최소 타수 상), 상금왕 등 개인 타이틀을 싹쓸이한 에리야 쭈타누깐(24, 태국)이 5위, 최근 7년 동안 매해 최소 1승씩을 기록한 렉시 톰프슨(25, 미국)이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펑산산(30, 중국), 크리스티 커(42, 미국), 수잔 페테르센(38, 노르웨이), 브룩 헨더슨(22, 캐나다)이 7~10위를 기록했다.

손흥민, '발롱도르' 아시아 역대 최고 순위

손흥민(27·토트넘)이 아시아 축구 역사를 또 한번 썼다.

3일 'STN스포츠' 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전날 열린 '2019 발롱도르 시상식' 에서 손흥민은 후보 30인 중 최종 22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지난 2007년 이라크의 유니스 마흐무가 받았던 29위를 넘어선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순위다.

손흥민은 팀 동료인 위고 요리스(토트넘) 칼리두 쿨리발리(나폴리) 마르크-앙드레 테어 슈테겐(바르셀로나) 카림 벤제마(레알 마드리드) 조르니지오 바이날둠(리버풀) 주앙 펠릭스(아틀레티코) 마르퀴뇨스(파리 생제르망) 도니 반 더 비크(아약스)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유럽 최고 권위 시상식에서 이름이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활약을 인정받은 셈이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소속팀 토트넘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이끌었고, 리그 12골 6도움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다. 올 시즌에도 4골 6도움으로 팀의 구제주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2002년 설기현, 2007년 박지성이 발롱도르 후보에 이름이 오른 적은 있지만, 득표에는 실패했다.

한편 2019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는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수상했다.

또 다른 수상 후보였던 버질 판 다이크(리버풀)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는 2,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판 다이크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며 수상이 유력했지만 메시를 넘지 못했다.

메시는 2009, 2010, 2011, 2012, 2015년에 이어 통산 6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했다. 지난해까지 나란히 5회를 기록한 호날두를 제치고 역대 최다 수상자로 등극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이광연공인회계사

"재산관리와 증식을 도와드립니다"

32년 경력의 세무·회계·재정계획전문가

- 세금보고 ● 감사대행
- 투자상담(Mutual Fund - 뮤추얼 펀드)
- 은퇴계획(Retirement Plannning)
  IRA'S IRA Rollover
  401(K), SEP, SIMPLE IRA
- 자녀대학 학자금 계획(College funding Plan)
- 상속계획(Estate plan)

Tel: (714)539-6444/5 Fax: (714)539-9261
9828 Garden Grove Blvd. #213, G.G, CA 92844
〈한미은행 옆, 김약국 2층〉